

목어

“주지스님, 부탁드립니다”

주지스님 하면 그 절의 최고 책임자이며 어른이다. 물론 규모가 아주 큰 사찰에는 주지스님 위로도 방장이나 조실, 선덕, 유나 등 많은 큰스님들이 계신다. 그러나 행정적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주지다. 따라서 사찰의 면모가 주지스님에 의해 좌우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느 절에 가든 주지스님 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주지 라는 단어가 말해듯듯 주지스님은 절을 지켜야 하는데 도무지 주지스님 뵈기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지스님들은 무엇이 그렇게 바빠 절을 비우는 날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 주지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처리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 같은 짐작이 간다. 사찰운영에서 신도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산더미와 같다는 어느 스님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더러는 부재중인 주지스님의 행적이 요연할 때도 있다고 한다. 향간에 들리는 말로는 무슨 이유인지 어느 호법이나 유흥지에서 며칠씩 머무는 적도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주지들은 어느 재벌 못지않은 돈냄새를 보인다고도 한다.

사람의 돈은 신도들의 희사금이나 전통사찰 입장료가 대부분이다. 어느 스님이건 자신의 노동력으로 부를 누리게 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그 돈은 그야말로 소중한 삼보정재(三寶淨財)이다. 이러한 돈이 부처님이나 불자들을 위해서 쓰이느냐, 개인적 유희비용으로 탕진되는냐는 주지스님의 재량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어느 절의 주지스님은 주지부인 의식인 진산식을 요란하게 치르지도 않고 조출한 기도나 법회를 대신했다고 한다. 이런 스님들이라면 일단 주지스님으로서의 덕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주지스님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절 좀 지키시고 삼보정재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수(정업도량 회주·본지 논설위원)

“불교학 연구 성과 공유 기회로”

내년 불교학 결집대회 준비 목정배 교수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학회, 연구원들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이 함께 모여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목정배 교수(동국대 불교학과·한국불교학회)는 요즘 불교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내년 5월 3~4일 동국대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불교학 대회인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회에는 지방승가대학을 포함한 각 대학의 강사 이상, 강원 강사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 등 200명이 넘는 불교학 연구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차례 준비 모임을 가진 지금까지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등 30개가 넘는 학술단체와 연구원, 한 명이다. 내년 5월 3~4일 동국대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불교학 대회인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30여 학술단체 참가 뜻 밝혀 “한국불교 도약 발전 디딤돌”

대회를 맡은 목 교수는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이탈로 “1630년 역사를 가진 한국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부처님께 학문적으로 헌정하는 일인 동시에 한국 불교가 가진 심천(深淵)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대회 의미를 설명했다.

대학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최근에는 기획, 총무, 학술, 편집, 섭외, 홍보, 전산, 국제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를 위한 홈페이지(www.skb.or.kr)를 개설하는 등 대회 준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학 관련 박사만 160명 이상이 배출됐습니다. 석사



◇불교학결집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목정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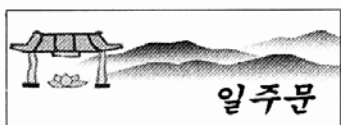
학위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4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제한 목 교수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제 불교학 연구가 개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 교수의 생각이다. 목 교수는 “지금까지가 개인기의 시대였다면 이제 그 개인기를 모아 한국

불교의 총체적 힘으로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불교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결집대회는 한국 불교가 신앙적 불교에서 학해(學解)적 불교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enny@buddhapia.com



일주문



심우사서 보살계 법문

고산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22일 오전 11시 거창포교당 심우사에서 열리는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법문한다.



대흥대중사 8주기 열반재

운역 천태종 총무원장은 19일 오전 10시 구인사에서 2대 종정 남대종 대종사 스님의 8주기 열반 대재를 봉행한다.



10월 다보법회 법문

인환 동국대 선학과 명예교수는 2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제2기 불교인권 강좌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는 10일부터 11월21일까지 ‘제2기 불교인권학 교 강좌’를 개설한다.



등광사 부처님 점인식

무연 태백 등광사 주지는 13일 오전 10시 등광사에서 부처님 점인법회를 봉행한다. 033581-6144

세종문화상 받은 김민수 교수



“한글의 독창성 세계에 알려야죠”

“세계화시대라고 해서 영어만 강조해 한글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 세종문화상을 수상한 김민수 교수(75·고려대 명예교수)는 수상의 기쁨에 앞서 한글이 영어에 침범해 가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30여년동안 국어국문학회와 국어학회를 창립해 국어학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던 김 교수는 특히 81년에 이종언어학회를 만들어 해외 교포들의 모국어 교육과 북한언어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 조선어학회 한글강습회 파견 강사로 지난 1945년에는 한달간 백양사에서 한글을 강의하는 등 한글문화보급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기도 했다.

“백양사 강습 수료 후에는 한글강사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강습생들이 해당지역과 사찰로 돌아가 한글을 가르쳐 파급효과가 대단했지요.” 김교수는 현재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한 두번 읽거나 들으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문법책과 CD를 만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통번역해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수익금 대학 운영기금으로”

승가대 기금마련 서각전 여는 운천스님

“어려움에 직면한 모교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염원하며 이번 서각전을 준비했습니다”

13~2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중앙승가대 운영기금마련 서각전’을 준비한 중앙승가대 서각회 회장 운천스님의 말이다.

이번 서각전은 중앙승가대 30여 학인스님들이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는 틈틈이 익혀온 서각솜씨를 선보이는 자리다. 불교의 경전과 불보살, 동자승의 모습을 소재로 한 80여점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생활공예공모대전 서각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종교예술제 서각부분에도 추천작가로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운천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 20여점을 내 놓기도 했다. 운천스님은 “전 사회의 수익금은 중앙승가대 운영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상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11-227-9311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공불련 1년 급성장 역군들

박준영·노옥섭 씨등 10여명 남다른 열정의 결실

7일 창립 1주년을 맞은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창립 당시 47개 불자회에서 현재 140개가 넘는 불자회로 급성장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공불련에 불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불련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불련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헌신해온 이들은 누구일까?

대부분의 공무원 불자들은 공불련 회장이자 감사원불자회 회장인 노옥섭 감사원 사무총장과 前 청와대불자회장인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을 우선적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노옥섭 회장은 안홍부 공불련 사무국장도 함께 연합회를 결성하고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추진해 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박준영 처장 역시 당시 명목상 뿐이던 청와대불자회의 회장을 맡아 법회개회에 열성적으로 움직이며 다른 공무원 불자회 창립에 많은 격려를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공직사회에서 불자로 알려지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선입견’을 불식시켰다. 많은 공직자 불자들이 ‘청 공직자 불자사 정립’과 대불자회와 국정원불자회의 활발한 실행 활동에 자극을 받았다”고 한결같이 말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여기에 중앙부처 각 불자회의 연이은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무총리실불자회 전총련 회장, 능림부불자회 나승렬 회장, 건설교통부불자회 송도근 회장, 전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 등도 공불련 발전에 큰 몫을 했다. 전총련 회장은 매일 정기법회와 함께 교리와 사찰예절 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게 해 불자로서 자긍심을 높게 했고 나승렬 회장은 한국선의 진수를 배우는 선법문을 함으로써 꾸준히 여는 등 불자회원들의 수행풍토를 크게 진작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불자회 등 과천청사 내 중앙부처 불자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교통부 불자회 송도근 회장 역시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등을 꾸준히 추진해 신심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은 법회나 사찰순례는 물론 찬불반, 서예반 등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을 배가 시키고 경찰청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불자회 결성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박준영 씨



◇노옥섭 씨



◇송도근 씨



◇김중겸 씨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김규석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팔공산 동화사 개산 1508년 기념 불교학술대회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

불기2545(2001)년 10월 20일(토) 오후 2시~6시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전

초대합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팔공산 동화사의 개산대재에 즈음하여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모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법륜불자교수회와 공동으로 동화사의 가풍, 역사, 문화, 인물, 사상, 가람의 특징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팔공산 동화사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불자들의 신심 함양과 일반 시민들의 정신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리는 불교학술대회가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교신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법당을 가득 메우는 빛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기 2545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 덕 합장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배 동호 합장

불교학술대회 등록 및 접수(13:30~14:00), 본행사(14:00~18:00)

- 제1부: 개회식
제2부: 논문발표 사회: 강수균 교수(대구대학교)
제1주제: 팔공산 동화사의 가풍 및 종지 김상현 교수(동국대학교)
제2주제: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 및 문화 정희돈 교수(영남대학교)
제3주제: 팔공산 동화사의 인물 및 사상 홍 선 스님(중앙승가대학교)
제4주제: 팔공산 동화사의 풍수 및 가람의 특징 성동환 교수(경산대학교)
제3부: 종합토론 사회: 김성규 교수(영남대학교)
○ 지정토론 해월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진기 스님(동화사 한주)
성호경 교수(서강대학교) 최영식 교수(영남이공대학)
조현춘 교수(경북대학교)
○ 자유토론